

2003년 시사용어

용어	설명
<p>◆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p>	<p>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 법에 항목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상속, 증여가 발생하면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상의 원칙. 한국의 현행 법령은 세법에 열거된 상속, 증여 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유형별 포괄주의’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유형별 포괄주의는 법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상속, 증여행위인 증자, 합병, 결손법인 등 13가지 유형에 해당될 때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00년말 도입됐다. 현 정부는 재벌이나 부유한 기업주들이 전문가를 동원, 현행 세법상의 허점을 악용해 부(富)를 번익적으로 세습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p>
<p>◆ 증권 집단소송제도</p>	<p>기업의 허위공시나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한가지. 피해를 본 소액주주중 한명이 대표가 돼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기면 그 효과가 소액주주 전체에 해당돼 나머지 사람들도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p>
<p>◆ 핵확산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p>	<p>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토대를 마련, 유엔총회의 의결을 거쳐 1970년 3월 발효시킨 국제조약. 주요 골자는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 및 그 관련 장비와 기술을 핵비보유국에 이양하는 것과 핵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190여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75년 4월, 북한은 92년 4월에 각각 가입했다. 북한은 그러나 가입 1년여만인 94년 3월 돌연 탈퇴를 선언했다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개입으로 탈퇴선언을 유보하고 94년 2월 자국내 핵관련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받았다. 북한은 미국이 제네바 미·북합의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중유 공급을 작년 12월부터 중단함에 따라 이 합의가 사실상 깨졌고 NPT 탈퇴선언은 여전히 유보돼있다는 ‘특수한 지위’를 들어 최근 NPT탈퇴를 다시 강력히 시사하고 나섰다.</p>
<p>◆ 클로네이드(Clonaid)</p>	<p>세계 최초의 인간복제 서비스 전문 회사를 표방하고있는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 인류가 UFO(미확인비행물체)를 타고 온 외계인에 의해 복제돼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종교집단 ‘라엘리언 무브먼트’(Raelian Movement)의 비밀 자회사 형태로 1997년 바하마에서 출범해 현재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본명이 클로드 보리용(Claude Vorihon)인 프랑스인 라엘은 1973년 ‘엘로힘’이란 외계인을 만나 인류탄생의 비밀이 복제기술이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 이색적 체험을 한 후, 이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라엘리언 무브먼트란 단체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엘은 그 후 영국의 로슬린연구소가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키자 인간도 복제해 내겠다고 곧바로 클로네이드란 회사를 만들었다.</p>

〈김영민 편집위원/ (주)보성구조 소장/ BSTG@hananet.net〉